



광주극장 영화제 포스터. (광주극장 제공)

개관 89년 광주극장 미래 비전 담은 영화제 연다

광주극장·광주시네마테크 공동 '영화제'

18일~11월 3일 영화상영·시네토크 등 다채
니콜라 세르지오·빅마마 신연아 듀오 콘서트



광주극장과 뮤지션들의 삶을 겹쳐 보는 권철 감독의 영화 '버터내고 존재하기'.

이곳은 어디일까. 1935년 개관한 호남 최최이자 최고(最古)의 극장, 89년간 같은 얼굴로 관객을 맞이한 대표소와 영사실이 있는 곳, 여전히 손간판을 그려 입구에 내거는 영화관.

지역 영화사와 함께 숨 쉬어 온 '광주극장'이 바로 그곳이다. 올해로 개관 89주년을 맞은 극장이 영화상영, 시네토크 및 음악 콘서트로 채워지는 영화제를 준비했다.

광주극장과 광주시네마테크가 '개관 89주년 광주극장 영화제'를 오는 18일부터 11월 3일까지 연다.

행사는 18일 오후 7시 '손간판 상판식'으로 막을 올린다. 마지막 간판쟁이로 불리는 박태규 화백과 15명 관객이 직접 그린 손간판을 극장에 건다.

이어 개관 100주년을 향해 나아가는 광주극장의 100년사 마스터 플랜을 공표하는 '광주극장 비전 선포식'을 진행한다. 개막작으로 무성영화 역사에서 빛과 그림자의 미학을 보여준 독일 표현주의영화의

거장 무르나우의 '선라이즈'가 스크린에 오른다.

19일(오후 3시)에는 개봉 10주년을 맞은 진모영 감독의 '납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를 상영한 뒤 GV(관객과의 만남) 행사를 진행한다. 진모영 감독과 박구용 교수(전남대 철학과)가 참석, 영화와 삶의 의미를 탐가지들과 나눈다.

같은 날 상영하는 '세 가지 색-화이트'는 크쥐시토프 키에슬로프스키의 트릴로지(삼부작) 중 하나다. 1994년 베를린 국제영화제에서 은곰상을 받은 작품.

독립서점 이서점의 한채원, 박수민 공동대표의 추천작 '당신 자신과 당신의 것'은 22일 관객을 만난다. 상영 후 두 사람과 토크도 예정돼 있다. 이외 23일 '럭키, 아파르' 및 강유가람 감독, 손수현 배우 GV, 24일 '괴물' 상영 후 김보라·이서영 시인과 만나는 시간도 마련된다.

자원순환과 삶을 모티브 삼은 '우린 일회용이 아니니까'는 26일, 라이너 베르너 파스빈더 작 '불안

은 영혼을 잠식한다'는 31일 상영할 예정이다. 각각 유혜민 감독과 순환실실험 한결음가게 김지현 대표, 서동진 교수(계원예대)가 참석해 관객과 토크를 진행한다.

끝으로 생존 투쟁을 이어가는 광주극장과 뮤지션들의 공통점에 착안한 영화 '버터내고 존재하기'를 상영한 후 시네 콘서트를 진행한다. 개봉 1주년을 기념하는 자리이며 작품을 기획한 최은은, 불나방 스타쏘세지클럽 및 키라라 등이 출연한다.

3일에는 콘서트와 영화를 한 번에 즐기는 '2024 음악으로 통한다' 행사가 극장을 예술 향기로 물들인다. 재즈 피아니스트 니콜라 세르지오와 빅마마의 리더 신연아가 듀오 공연으로 찾아올 예정이다(예매 3만원).

니콜라 세르지오는 데뷔작 '상징'으로 이탈리아 재즈 전문지 'Jazzit'에서 그해의 음반으로 선정된 아티스트다. 우리나라에는 두 번째 앨범 '환상'이 국내 재즈 매체에서 우수 음반으로 선정된

바 있다.

2003년 데뷔한 빅마마는 '체념', '연' 등 다양한 히트곡으로 스테디한 사랑을 받는 4인조 여성 보컬 그룹이다. 같은 날 영화 '블루 자이언트', '마지막 웃음'도 상영을 예고했다.

광주극장 김형수 전무이사는 "개관 90주년을 앞둔 광주극장은 중요한 한 해를 맞았다"며 "89년 역사를 되돌아보며 앞으로 다가올 시간들이 불안한

면도 있지만, 극장을 찾아주시는 관객이 있어 버터내고 존재할 수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등록문화재 추진과 더불어 고향사랑 기부제 기금을 통해 노후화된 장비와 시설이 개선되면 향후 나아진 환경에서 영화를 상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관람료 성인 1만원.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윤선도 문학 기리는 고산문학축전 열려

11~12일 녹우당... 고산문학 대상 김정환·시조부문 정수자 시인

제24회 고산문학 대상에 김정환 시인의 '황색예수 2' (문학과지성사), 시조부문 정수자 시인의 '인칭이 점점 두려워질 무렵' (가희)가 각각 선정됐다.

고산문학대상 심사위원들은 최근 심사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대상작을 결정했다.

미등단 문인들 등용문인 신인상에는 전재운의 시 '바코드'와 시조 부문 오교정의 '납자'가 각각 당선됐다.

고산문학축전운영위원회(위원장황지우)는 올해도 고산문학의 의미를 되새기고 창조적 계승을 도모하기 위한 제24회 고산문학축전을 연다. 11일~12일 녹우당 원림 내에 있는 땅끝 순례문학관 야외무대에서 열리며 고산문학대상, 시인상에 대한 시상식도 함께 진행된다.

고산(孤山) 윤선도(1587~1671)는 송강 정철, 노계 박인로와 함께 조선시대 3대 가인(歌人)으로 꼽힌다. 특히 고산은 단가와 시조에 있어 뛰어난 역량을 발휘했다.

기록에 따르면 고산은 병자호란 당시 인조가 항복했다는 소식을 접한 후, 이를 부끄럽게 생각하고 더 이상 세상으로 나가지 않는다. 보길도에 은거하며 일대를 '부용동'이라 칭한다. 그리고 격자봉 아래 집을 짓고 세연정, 석실(石室) 등을 만든다. 그곳에서 그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사계를 모티브 삼아 자신만의 개성적인 시조를 창작했다. '어부사시사', '고산선생유고' 등은 탁월한 작품으로 평가받는다.

김경운 사무국장은 "문학축전은 한문이 지배했던 조선시대 우리말로 탁월한 서정시를 창작했던 고산 윤선도의 선구적인 시정신과 선비정신을 기리기 위해 기획했다"며 "지역의 대표 문화축제인 이번 축제를 매개로 고산의 시정



김정환 시인, 정수자 시인

신을 고양하는 것은 물론 문학 창작의 활성화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문학축전의 막은 11일 오후 2시 문학평론가인 권혁웅 교수와 박명숙 시인의 '고산 인문학콘서트'로 문을 연다. 고산 인문학콘서트는 고산문학대상 수상시집 해설, 수상자와 대담, 수상작품 낭독, 축하공연 등으로 이루어진다.

오후 4시부터는 땅끝순례문학관 야외무대에서 고산문학대상 수상자와 심사위원 이화석 시인, 이진명 시인, 박명숙 시인과 전국의 문인들이 참여하는 시상식이 진행된다.

한편 축전과 연계돼 고산 청소년 시서화 백일장은 4일까지 접수했으며, 고산 청소년시 낭송대회는 12일 오전 10시 고산유적지 땅끝순례문학관 야외무대에서 열린다.

황지우 위원장은 "이번 고산문학축전은 '시문학의 일번지' 해남에서 열려 지역의 위상과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문학의 계절 10월에 열리는 문학축전에 지역민을 비롯한 문학인들의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

40여년, 그렇게 금속과 하나가 되었다

유영선 작품전, 16일까지 이화갤러리

오랜 시간 다듬고, 불의 시간을 견뎌내야 완성되는 금속공예.

금속은 차갑고 단단한 물질이지만 기저에는 따뜻함과 유연함이 존재한다. 정반(正反)의 이치다. 그러므로 금속을 다룬다는 것은 "단순한 작업이 아닌 나 자신과의 대화"이다. 가장 어려운 것 가운데 하나가 자신과의 대화다. 말이 대화지 사실은 자신과의 싸움에 다름없다.

유영선 작가의 금속공예 작품은 자신과의 정투의 산물이다. 그것에는 긴 시간 자신과 애면글면 닦았던 시간의 흔적이, 사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없이 작품에 물두었던 세월이 투영돼 있다.

작가는 40여 년의 시간을 그렇게 금속과 하나가 됐다. 작품에는 차갑고 단단한 물질을 따뜻하고 유연한 성질로 변화시키기 위해 인고했음을 아득함과 쓸쓸함이 담겨 있다.

유영선 작가의 작품전이 오는 16일까지 이화갤러리에서 열린다.

'금속 속에 흐르는 시간'이라는 주제의 전시는 전통적인 금속 공예기법을 현대적 미감으로 재해석하는 데 초점을 뒀다. 특히 이번 전시는 회감을 맞아 열려 더욱 의미가 깊다. 그동안 여정을 갈무리하고 새로운 장을 연다는 각오도 담겨 있기 때문이다.

작품 '매란국죽'은 세련되면서도 현대적인 이미지가 눈에 띈다. 한편으로 뜨거운 불의 열기가 스며 있음을 감지하게 된다. 서로 다른 매란국죽의 아름다움과 작품들이 발하는 아우라는 고혹적이면서도 차갑다. 금속에 옷칠을 입히고 자재를 상감해 고전적이면서도 모던한 조형성을 구현한 것이다.

'빛살무늬 은제 차도구'도 은은한 세련미를 발한다. 비동질적인 물성을 확장한 방식과 그것에 작가



'매란국죽'

의 감정을 이입한 데서 오는 효과다.

한편 한선주 조선대 미대 명예교수는 "오랫동안 유영선 작가가 묵묵히 추구하는 작업 세계는 내면의 시간과 외부와의 소통을 통한 삶을 기록하는 이치이다. 문화의 변천에 따라 작가만의 미감을 찾아가고 있다"며 "이번 전시는 독자적인 가치를 찾아 생활 안에서 쓰임의 폭을 모색하고 순환시키고자 하는 작가의 시간"이라고 평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키르기스·카자흐 예술가들 광주에서 '일쭉'

광주문화재단, 문화교류... 11일 빛고을아트스페이스

아시아 문화기관 교류협의회 일원인 키르기스스탄 국립 마나스극단, 카자흐스탄 국립아카데미 고령극장 등이 광주에서 전통문화를 교류한다.

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노희용)이 "전통으로 마음을 잇다"를 11일 빛고을아트스페이스 5층에서 선보인다. 전통공예 및 전통놀이체험으로 구성된 이번 행사는 특색 있는 중앙아시아 전통예술을 만나는 자리다. 오후 4시 대강당에서 전통공예 및 전통놀이체험, 오후 5시 소강당에서 전통예술 공연 진행(러시아어 통역 제공).

공연은 키르기스스탄 마나스극단 및 단원들의 '마나스 서사시 구연', 전통현악기 코무즈를 결들인 '다스탄 소서사시'로 채워진다.

이어 카자흐스탄 국립아카데미 고령극장 단원들은 '다르칸 달라', '밀양 아리랑'을 비롯해 '오탄 아나', '오티라르', '알코니르' 등을 선보인다.

광주시 무형유산 예능 보유자인 김선이(소리), 판소리교법 이수자 김동현(고수) 등 한국팀도 출연한다. 단가 '사철가'를 시작으로 판소리 춘향가 중 '어사상봉 대목'을 부른다.



김선이

임방울국악계 최우수 상 출신인 무용수 신솔찬과 바오무용단 대표 박태영은 '진도북춤'과 '사랑가부'로 관객들을 만난다.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소속 김선재의 아쟁, 남도민속놀이문화예술원 음악감독 정희완의 대금 선율도 울려 퍼진다.

공연이 진행되는 동안 '생활공예'를 주제로 한 전시도 마련된다. 지역 명인들이 만든 펠트 소재의 수공예품 20여 점과 국내 규방공예품 15점을 선보일 예정이다(빛고을아트스페이스 대강당 일대에서 오후 4시부터 7시). 모든 공연과 체험 무료.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고객에게는 신뢰와 만족"



KSA 한국표준협회

ISO 21388

보청기적합관리 인증센터



국제보청기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